

역사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문화전쟁’

- 1619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윤세병*

국문요약

이 논문은 최근 미국의 대표적 문화전쟁의 하나인 1619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였다. 첫째, 1619 프로젝트보다 앞선 시기에 전개되었던 역사 이해를 둘러싼 갈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뉴욕타임스〉 기획인 1619 프로젝트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1619 프로젝트에 대한 대항마의 성격으로서 트럼프가 만든 1776위원회에 관해 분석하였다. 넷째,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를 중심으로 1619 프로젝트의 자료뿐만 아니라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에 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의 역사교육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주제어: 문화전쟁, 뉴욕타임스, 1619 프로젝트, 1776 위원회,
비판적 인종 이론

I. 머리말

‘문화전쟁’이라는 용어는 이질적 문화나 생소한 문화를 마주할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¹⁾ 최근의 코로나 유행

* 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threeb@hanmail.net

1) 국내 언론에서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문화상품을 타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도 문화전쟁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홍성욱 2022). 문화전쟁이란 용어는 1991년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제임스 헌터(James Davison Hunter)가 펴낸 동일한 명칭의 책 제목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낙태, 동성애자 권리, 여성의 권리, 다문화주의 등의 쟁점을 놓고 미국 내 ‘진보주의자(the progressive)’와 ‘정통주의자(the orthodox)’ 간에 전개되어온 진영화한 사회적 갈등을 문화전쟁이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기원을 영국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프로테스탄트가 주류였음에도 그 내부가 다양한 분파로 나뉜 가운데, 가톨릭과 유대교 이민자가 가세한 종교적 다원성에서 그 뿌리를 찾았다(Hunter 1991, 67-106).²⁾

문화전쟁이란 용어가 빠르게 널리 사용된 계기는 1992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섰던 패트릭 뷰캐년의 1992년 8월 17일 연설이었다(Buchanan, 1992). 그는 닉슨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대통령 보좌관, CNN 프로그램의 사회자 등으로 유명세를 탄 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인위적 낙태나 동성혼, 포르노 등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1960~70년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1992년 4월 말~5월 초에 일어났던 LA 폭동을 언급하면서 “소년들이 LA 거리를 한 블록씩 되찾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도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나라를 되찾자.”라면서 연설을 마무리하였다. 파괴적 양상의 LA 폭동은 마치 리버럴파(liberals)가 만들어 놓은 미국의 혼란상을 지칭하는 듯하며, 이러한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며 보수주의자들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 미투, 동성애, 총기 규제, 지구온난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운동 등의 여러 이슈에 관한 미국 내 갈등을 문화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성격이 다른 논점이 여러 가지여서 하나로 수렴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정체성 논란이다. “미

국에 수출하여 이윤을 얻는 행위를 문화예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문화 전쟁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공중식(1994), 『21세기를 여는 포성 문화전쟁(29)-쥬라기공원 스피들버그, 라이언 킹 카젠버그, 게펜레코드 게 펜, ‘꿈’의 결합』 『동아일보』; 박석재(1995), 『문화전쟁 시대 돌입, 과학문화 육성 절실』 『조선일보』 참조.

- 2) 미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전쟁이란 용어를 이 논문에서 사용하지만, 이 용어가 서로 다른 인식이나 가치의 충돌을 보여주는 데는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충돌을 만들어내는 미국 사회 내 사회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어쩌면 그러한 문제를 은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국민은 누구인가?”,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연관되어 있다. 오랫동안 미국인은 백인이며, 미국은 백인의 국가라는 인식은 거의 도전을 받지 않았다. 1960~70년대 반전운동과 더불어 흑인 민권운동, 여성운동 등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인식 지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인종주의의 극복, LGBTQ의 존중, 여성의 권리 보장 등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상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을 둔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에서 대립의 골이 깊이 파인 면도 있다.

이러한 문화전쟁 중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 사회에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근래 가장 크게 격돌한 사안이 <뉴욕타임스> 주도로 2019년에 시작된 1619 프로젝트이다. 미국 역사에서 1492년(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1620(메이플라워호의 미국 도착), 1776년(미국 독립 선언), 1863년(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과 같은 연도는 익숙하지만 1619년은 낯설다. 익숙함은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만큼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반면, 낯설음은 그 역의 경우에 해당한다. 1619년은 아프리카 흑인이 식민지 노동력으로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수입’된 해였다(本田創造 2021, 31-33). 그 해를 미국 역사의 변곡점으로 설정하자고 <뉴욕타임스>가 캠페인을 벌이자 논란이 일어났고, 당시 집권하고 있던 보수 성향의 트럼프 정부와도 충돌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619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미국 내 역사 갈등의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1619 프로젝트의 내용 및 관련 논쟁, 정치적 파장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기로 한다. 역사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 담장 안의 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 역사 갈등을 역사교육 논쟁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한다.

II. 다문화주의와 역사교육 논쟁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뿌리 깊은 문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그 하나의 전기는 1954년 미연방대법원이 인종적으로 분리된 학교 시설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결정이었다. 1896년 연방대법원이 인종 분리 학교가 평등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내린 판결을 60여 년 만에 뒤집은 사건이다(이성호 2002, 81).

그리고 미국 사회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 문화(counter culture) 즉, 히피 문화, 락, 마약, 공민권운동, 여성운동, 베트남 반전운동,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 환경운동 등의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케네디, 존슨 등의 민주당 정부는 ‘과거의 역사적 차별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 차별금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에도 이어진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화당의 닉슨 정부 역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지속하였다. 1970년대 미국 사회는 소수민족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고용과 교육에서 기회를 확대하였다(이종일 2019, 203-211). 그 상징적인 사건의 하나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우 판결이었다.

교육 분야를 보면 인종차별의 피해자인 흑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대규모의 빈곤 퇴치 운동이 일어났다. 빈곤과의 전쟁의 주요 골자는 빈곤과 열악한 교육 여건 사이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빈민층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대학 진학에 있어 일정 지분을 보장해 주거나 그들의 입학에 특혜를 주는 조치가 등장하여 확산되었다. 백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1978년 연방대법원이 5:4로 “다인종적 학생 집단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는 입장을 손들어 주었다(이성호 2002, 83-84). 보수파들은 다문화가 미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화를 분열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자칫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우려하여 발언이 주춤하였다(정상준 2001, 78). 보수파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미국 문화의 독특함과 단일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고, 문화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1965년의 이민법 개정 역시 문화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는 유럽계를 우대하는 인종주의적 이민 선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미국 내에서도 공민권운동에 의해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져 출신국별 할당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나 중남미계 이민자

의 증가로 문화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받기도 하나, 문화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면서 문화전쟁의 일부가 되었다. 1960~70년대는 진보적인 분위기가 대세를 이뤄 문화 전쟁이 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인종, 성, 이민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치관을 허용하자는 리버럴파와 전통적인 가치관의 옹호를 내세우는 보수파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1980년대 이후에는 보수파가 공화당으로, 리버럴파가 민주당으로 결집하여 대립이 심화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논쟁이 전개되면서 다문화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1986년 스탠퍼드대학에서 흑인 학생회가 시작해 히스패닉 학생회와 페미니즘 진영의 여학생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 서양 중심주의적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나 민족, 인종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혁의 요구가 커졌다.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을 포함하지 않는 중립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 수용과 교과목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스탠퍼드대학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미국의 여러 우수 대학들이 논쟁을 거치면서 스탠퍼드의 선례를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신문수 2016, 3-5). 백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배제되거나 주변화한 다른 집단, 즉 여성이나 유색 인종 등의 삶과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흑인, 이민자, 여성, 원주민 등 여러 집단의 기여를 존중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입장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들은 문화적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인한 사회적 결속의 약화와 사회의 분열을 우려하였다.

다문화주의는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관심사였다. 특히 역사와 사회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의 문화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다인종·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다인종 비율이 높은 주에서 다문화 현실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정하려 하자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논쟁을 거치면서 다문화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대도시는 물론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다문화와 관련한 논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찬반 논쟁의 사회적 피

로감일 수도 있으나 다문화주의의 주장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논쟁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정상준 2011. 70-71).

그러나 2001년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사회가 경직되면서 사회 통합과 이민 통제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문화주의가 역풍을 맞았다. 미국인들 대다수는 9.11 사건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애국주의가 발동하면서 포용과 공존보다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강화되었다(신문수 2016, 25). 보수적인 사회적 기류가 다문화 인식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다문화와 관련된 논쟁은 역사교육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역사교육이 국민 국가의 등장과 함께 공교육의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역사교육은 태생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역사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국가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인식될 때, 문화전쟁이 일어났다. 한국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관련 역사교육 논쟁이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지만(강선주 2001, 강선주 2015, 김기봉 2011, 김정옥 2015), 논쟁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사에 대한 첫 논쟁은 19세기 이래로 어찌면 지금까지 계속되는 미국 혁명의 기원과 결과에 관한 것이었고, 연방정부가 공식적인 역사를 공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전쟁에 대해 한동안 남부와 북부의 학생들이 서로 충돌하는 해석으로 공부해 양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회적 논쟁이 외적으로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후인 1920년대부터였다. 무엇이 ‘진정한 애국심’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남부를 희생시켜 북부를, 세계를 희생시켜 미국의 힘을 확장하는 게 옳은 것인가의 문제제기를 한 교육자나 교과서에 대한 공격이었다. 전쟁 이후 민족주의를 성찰하자는 목소리는 묻히고, 민족주의 정서가 극단화하는 사회적 기류가 형성되었다. 극우 애국주의자들에 의해 일부 교사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교재가 도서관에서 퇴출당하거나 거리에서 불태워지기도 했다. 이로써 역사와 국가 정체성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관한 첫 대중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는 역사적 판단은 항상 감정적이라는 역사학계의 신조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이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준다는 역사교육이 진행되자 보수 우파의 공격이 가해졌다. 그들은 역사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소비에트화”하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진정한 미국의 고유성이 아닌 편견 없는

관점”을 가르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Nash, et al 1997, 26-45).

한동안 논쟁은 잠잠하다가 냉전 시기 매카시즘의 여파로 다시 논쟁이 일어났다. 공립학교가 공산주의에 물들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전체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의 주에서 교사들에게 충성 선서를 요구했고, 33개 주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매우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불충(disloyal)’으로 판명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극우 애국주의 단체들은 대공황 기간 미국의 빈민가와 실업자 행렬을 묘사하는 교과서나 학생들에게 노동, 인종, 젠더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나치게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저자를 공격하였다. 진보적 의제와 비판적 탐구를 반영한 역사 교육과정을 저지하려는 보수 우파의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의 미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역사 교육과정 역시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등에서 영감을 받아 백인, 남성 위주의 역사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다문화를 존중하면서 비판적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과정이 보수 세력과의 논쟁을 수반했던 것처럼, 역사교육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쟁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초 클린턴 정부 시절의 역사표준(National Standards for History) 논쟁이었다. 미국의 초·중등 역사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미국 역사교육센터(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Schools, NCHS)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놓고 미국 내에서 커다란 격돌이 일어났다. 원래 출발은 1989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미 주지사협의회에 요구로 시작되었으며, 미국 전역에 일괄 적용할 표준적인 역사교육 방안의 개발이 아니라 역사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강선주 2015, 42). 3년 넘는 기간 동안 31개의 기관과 6천여 명의 교사, 학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미국의 역사를 노동, 여성, 소수민족, 종교적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고려한다는 입장이 역사표준에 반영되었다. 역사학에서 사회사와 문화사 분야의 새로운 연구 경향과 미국 사회의 다문화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역사교육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역사표준 작업을 하던 미국 역사교육센터의 재원을 담당하는 인문학 기금의 이사장 린 체니(Lynne Cheney, 후일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의 부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역사의 종말’이라는 비판 기고문을 시작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다. 다문화주의와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정통 역사’를 부정하고 애국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와 미국 사회가 다양한 인적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어 이에 걸맞은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섰다. 우파 성향의 언론과 방송에서 정치 공세를 폈다. 1994년 11월 보궐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역사표준의 악마화 작업에 성공하였고, 결국 상원은 99대 1의 표결로 역사표준의 폐기를 결론지었다(Parenti 2003, 47-48).

이러한 문화 전쟁이 2010년에 텍사스 주에서도 재현되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를 재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주 정부 교육위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화당원이라는 여건 속에서 관철시켰다. 그리고 ‘노예무역(slave trade)’과 ‘자본주의(capitalism)’, ‘제국주의(imperialism)’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 ‘대서양 삼각 무역(Atlantic triangular trade)’과 ‘자유 기업 체제(free enterprise system)’, ‘팽창주의(expansionism)’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Paulson 2010). 5년 후인 2015년에는 텍사스 주의 교과서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미국의 유명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우 힐(McGraw-Hill)에서 펴낸 9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현이 발단이었다. 15세의 한 학생이 자신이 배우는 교과서에 아프리카인의 미국으로의 강제적 이동을 ‘이주’로, 노예를 ‘노동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사진 찍어 엄마에게 보내자, 영어 교사이자 언어학 박사 과정에 있던 학생의 엄마가 아들이 보낸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였다. 그 사진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해당 출판사에 비판이 쏟아졌다(Wang, 2015). 결국 출판사는 여론을 의식해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노예/노동자 논란 이후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주 정부 교육위에 대학교수들을 추가하라는 요구가 거뒀지만 거부되었다. 10명의 공화당원과 5명의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에서 두 명의 공화당원을 제외한 8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8:7로 부결되었다(Garrett, 2015). 때마침 한국에서 국정 교과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언론은 정치권력에 의한 역사교육 왜곡의 사례로서 한국과 텍사스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Evans 2015.21.1).

2014년에는 콜로라도 주에서 새롭게 도입한 교육과정이 애국주의와 자유 기업 체제의 유용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며 제퍼슨 카운티 학교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비판하였고, 보수 인사들이 가세하여 정치 쟁점화했다. 그러자 제퍼

슨 카운티 내의 10여 개가 넘는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항의하자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학교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일련의 역사 논쟁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정치 논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Ⅲ. 미국 역사상의 흑인 문제를 제기한 1619 프로젝트

1619 프로젝트는 역사 관련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근래 BLM 운동과 더불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표적 문화전쟁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1619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BLM 운동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1619년은 약 20명의 아프리카인을 태운 네덜란드 선적의 영국 민간 선박이었던 화이트 라이언(the White Lion)호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 주에 입항한 해였다. 화이트 라이언호는 아프리카인-포르투갈인의 합동으로 오늘날 앙골라에 있는 은동고 왕국을 기습 공격하여 사로잡은 아프리카인들을 실어 날랐다. 선박은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에 있는 포인트 컴포트(Point Comfort)에 상륙하였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첫 아프리카인들은 1500년대 이래 카리브 해의 섬 등 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 건너왔지만, 영국령의 미국 본토에는 버지니아가 처음이었다. 그들의 도착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서 평생 노예로 일하게 되는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에 대한 인종 차별이 생겨났고 동산 노예제가 법제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619년으로부터 4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2019년 <뉴욕타임스>가 기획 특집으로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욕타임스>의 일요일판에 포함된 잡지 부록인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주도하였지만, 실은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1619년 400주년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뉴욕타임스>가 부각되면서 다른 움직임들은 가려진 면이 있다.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윌리엄·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은 2012년부터 ‘1619와 미국의 형성’(1619 and the making of America)이라는 기획을 진행하였다. 이 기획은 1619년이란 해가 버지니아 주에서 버지스 하우스(Burgess House)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의회가 처음 설치된 해이면서도 기록에 남아있는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버지니아에 아프리카인이 처음 도착한 해로, 400년이 되는 해에 그 중요성을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미 있게 기억하기 위한 주제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2018년 2월 23일 미 의회도서관의 존 W. 클루지 센터가 윌리엄·매리 대학,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 노퍽주립대학과 협력하여 ‘1619와 미국의 형성’이란 주제로 미 의회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최 측은 미국 역사에서 1619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복잡한 만남을 탐구하기 위해 학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1619년 버지니아에 도착한 아프리카인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선주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떤 삶의 방식이 생겨났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유산은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흑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선주민인 인디언 이야기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래전 일이지만 역사적 상처를 드러내고 직면하자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이를 의제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1619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아무래도 〈뉴욕타임스〉라는 인지도가 높은 언론이 주도하면서 대중적 파급력도 매우 컸다. 2019년이 흑인 노예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 거래가 시작된 1619년으로부터 400주년이란 점에 주목하여, 미국 인종차별 역사를 반추하고 흑인들 역시 백인과 동등한 미국 역사의 건설자임을 부각시켜 보는 기획을 해보면 어떨겠냐는 니콜 한나 존스(Nikole Hannah-Jones) 기자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진정한 미국의 역사는 1776년 독립선언이 아니라 1619년에 시작되었다’는 특집 시리즈 기사인 1619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집을 기획한 니콜 한나 존스 자신도 흑인(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이다. 대학 졸업 후 몇 개의 신문사를 거쳐 2015년에 〈뉴욕타임스〉로 이직해 인종문제 기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1619 프로젝트는 한나 존스가 진행했던 기존 작업의 종합이라 할 수 있다.

한나 존스는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1619 프로젝트 판에 실렸던 글들을 2021년에 단행본으로 정리해서 낸 『1619 프로젝트: 새로운 기원 이야기(The 1619 Project: A New Origin Story)』의 서문에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이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Hannah-Jones 2021).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이라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면서 그간 배우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역사를 알게 되었

고, 담당 교사로부터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베넷(Lerone Brennett, JR, 1928~2018)의 저서 『메이플라워 이전: 블랙 아메리카의 역사(Before the May Flower-A History of Black America)』를 소개받았다. 그 책에 실린 아프리카의 흑인을 실어 날랐던 상선 화이트 라이언 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1619년이란 연도를 처음 충격적으로 접했고, 흑인의 역사가 백인의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초중등학교에서 배우는 미국 역사 중에 흑인이 등장하는 내용은 매우 적으며, 1863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에 이은 노예제 폐지 이후 흑인이 사라졌다가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레 마틴 루터 킹이 등장해 ‘꿈’에 대해 연설하고 워싱턴 행진을 이끌어야 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흑인의 시선에서 최초의 흑인 노예가 상륙하는 1619년부터 역사를 직시한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일 것이며, 화이트 라이언 호가 버지니아에 도착한 것이 1619년 8월이었다는 점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어서 노예제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를 다루는 특별 기획을 제안하였고 동료들은 큰 반발 없이 수용하였다. 기획이 회사로부터 승인받자 노예제와 그 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 경제학, 법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 24명에게 연락하여 집단 토론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619 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기획 기사를 내는 6개월 동안 잡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400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 8월 18일에 뉴욕 타임스 일요일 특별판인 <뉴욕타임스 매거진>을 통해 첫 출발을 알렸다. 주 편집자인 제이크 실버스타인(Jake Silverstein)의 서문과 함께 10편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사진 에세이, 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분량은 100쪽이었다. 게재된 에세이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 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처음 문서로 작성될 당시에는 거짓이었다. 흑인 미국인들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미국은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었다.”(니콜 한나 존스)/ “미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랜테이션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Matthew Desmond)/ “왜 미국에는 보편적 의료보험이 없는가? 답은 남북전쟁 이후 취해진 정책에서 시작한다.”(Jeneen Interlandi)/ “애틀란타의

교통 체증은 노예제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Kevin M. Kruse)/ “미국 민주주의는 건국 당시부터 비민주적이었다는 가정, 즉 어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Janelle Bouie)/ “인종에 따라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편견이 노예제를 합리화하는 데 쓰였으며, 오늘날의 의사들도 그 편견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Linda Villarosa)/ “수 세기 동안 흑인 음악은 속박된 채 완전한 공짜의 음악이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항상 흠쳐가고 있다.”(Wesley Morris)/ “미국인의 식단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설탕은 노예제를 부추킨 ‘흰색의 금’으로서 야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Khalil Gibran Muhammad)/ “노예제는 미국인들에게 흑인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적 처벌의 취향을 심어주었다. 양자 모두 여전히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Bryan Stevenson)/ “인종 분리로 인한 막대한 빈부 격차, 금융서비스 배제, 퇴거 및 배제로 인한 막대한 부의 격차가 백인의 미국과 흑인의 미국으로 갈라놓고 있다.”(Trymaine Lee)

에세이의 제목을 보면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하다. 교통 체증이나 설탕 선호와 같은 미국인의 생활 모습을 노예제나 인종 분리와 연관시켰고, 현대의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흑백 차별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노예제와 흑인 차별의 부정적 유산이 현재 생활의 미세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들로 구성되었다. 백인들이 태생적으로 흑인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 사회에 존재한다면 의식의 영역까지 짚고 있다. 한편 노예제가 근대 자본주의와 작업장 규범을 만들었으며, 그 연장선상에 노예제 찬성론과 현실 우익 정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책자는 뛰어난 작가들의 사진, 시, 이야기를 가미해 미국 흑인의 역사에 대한 신선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전체적인 구도는 미국 역사의 서사에서 노예제의 중요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기여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미국사의 틀을 다시 짜자는 제안이었다. 흑인들이 미국의 문화, 경제, 정치적 발전의 핵심적인 공헌자로서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들’이며 노예제가 미국 건국의 진정한 기초라는 입장이었다. 백인이 만들어 낸 역사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지금까지의 미국 역사를 노예제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시도였다.

한나 존스는 미국 독립혁명이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

이였음을 시사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결정한 이유의 하나는 노예제의 유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 사실은 미국 독립과 관련된 ‘영웅들’의 면면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예 소유주였던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영웅’으로 불려온 인물이나, 로버트 리 장군 등의 남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재조명도 1619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이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기념일도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 대신 흑인 노예들이 처음 상륙해서 거래된 1619년 ‘8월 20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독립혁명을 상징하는 1776년에 ‘자유’의 쟁취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전통적인 관념을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1619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뉴욕타임스〉의 예상을 뛰어넘어 폭발적이었다. 잡지가 매대에서 빠른 속도로 매진되었다. 추가로 인쇄된 수만 부도 바로 동났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1619)가 달리고 독자들 사이에서 독서 모임이 열리기도 하였다. 첫 기획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크게 일어나자 안정적으로 본격 연재에 들어갔다. 프로젝트의 사이트에는 “드디어 정직하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며, 프로젝트는 “미국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1619년을 진정한 건국으로 이해하고, 노예제의 결과와 흑인 미국인의 공헌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619년을 새로운 건국 연도로 설정하자’는 캠페인을 내걸고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역사의 프레임을 흑인과 백인의 갈등, 흑인을 억압하여 발전의 근거를 마련한 백인의 착취로 재설정하는 연속기사를 냈다. 이 프로젝트는 흑인이 미국의 역사에 공헌한 바를 중심으로 미국 역사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기존의 서사와 배치되었고, 노예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재의 인종 차별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타임스〉 웹 사이트의 인기 콘텐츠가 되었다. 사이트에는 다양한 기고자들이 보낸 에세이, 시, 사진, 단편소설이 축적되었다. 오프라인의 각종 이벤트 등도 기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팟 캐스트 방송 등으로도 확장되었다. 동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료도 등장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노예제와 인종 차별이 미국 사회와 역사에 존재해 온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충격이 컸고 곧 이 프로젝트의 자료는 미국 전역의 초중고에서 역사 수업의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뉴욕타임스〉측도 교재 활용을 의식해 아동·학생용

읽기 자료와 쌍방향의 퀴즈 등으로 구성된 학습 친화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해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등도 지원에 나섰다. 여러 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에 배포용으로 제작된 잡지 수십만 부가 보급되었다. 풀리처 위기보도센터(The Pulitzer on Crisis Reporting)는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연재에 실렸던 18개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참고자료, 핵심 용어, 생각해 볼 문제 등을 담은 교육 자료인 「1619 프로젝트」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교사들로부터 다양한 수업 사례를 수집해 온라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단발적인 뉴스 기사가 아니라 계기수업 자료로 만들어져 학교 교육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미국 내 4,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 자료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주 정부 차원에서 채택한 지역도 5개 주나 되었다.

2020년 5월 4일, 풀리처상 위원회는 한나 존스가 1619 프로젝트의 서두에 실은 에세이를 2020 풀리처상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나 존스의 풀리처상 수상은 프로젝트가 공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나 존스는 유명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한편, 랜덤 하우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2021년 11월에는 1619 프로젝트 선집으로 『1619 프로젝트: 새로운 기원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동시에 노예제의 참상과 흑인 저항의 역사를 48쪽의 아동용 그림책으로 표현한 『1619 프로젝트: 물에서 태어나다(The 1619 Project: Born on the Water)』도 함께 발간하였다.

IV. 1619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

1619 프로젝트의 기획 기사가 실린 <뉴욕타임즈 매거진>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운전했다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반면에 비판도 적지 않았다. 먼저 역사학자들이 비판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 기획 기사가 나온 지 1주일 정도 지난 8월 24일 영국 식민지 시기의

미국을 연구하는 수잔 파커(Susan Parker)가 프로젝트를 비판하였다. “우리는 꾸밈없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1619 프로젝트의 첫 기사 1면에 커다란 글씨로 배치되었던 역사학자 존 호프 프랭클린(John Hope Franklin)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1619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녀는 노예제가 이미 13개 식민지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1619년보다 50여 년 더 빠른 시기인 1565년 9월 8일 스페인령 플로리다의 세인트 어거스틴(St. Augustine)을 세우고 이곳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를 이송한 시기뿐만 아니라 더 이른 시기인 1526년 9월 말이었으며, 산 미구엘 데 구알다페(San Miguel de Gualdape)에 정착해 11월 중순까지 약 6주간 생활하였으나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스페인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질러 정착지가 버려졌다고 한다(Parker 2019.8.24.). 1619년 이전에도 미국 동남부와 대서양 연안에 흑인 노예가 반세기 이상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수잔 파커가 문제를 제기하자 <USA 투데이>는 수잔 파커, 인권 운동가이자 지역사 연구자인 데이비드 놀란(David Nolan), 고고학자 캐슬린 디건(Kathleen A. Deagan)을 인터뷰하여 세인트 어거스틴을 좀 더 상세한 기사로 다루었다. 놀란은 수잔 파커가 지적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른 시기에 흑인들이 정착한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1619 프로젝트의 저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흑인의 역사를 강탈한다고 주장하였다. 디건은 많은 미국인이 미국의 역사를 영국적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는 고정관념이 강해 스페인 사람들이 끼친 영향은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편견을 바로 잡는 데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이다(Ellis 2019.12.17.).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1619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더 오랜 노예무역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령이었던 플로리다 지역에 관한 관심을 요구하였다.

좌파 성향의 <세계 사회주의 웹 사이트(World Socialist Web Site)>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미국의 ‘진정한 건국’을 재설정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역사 위조(falsification of history)’라 보고, 이 기획이 오히려 ‘인종주의적’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즉, 미국 역사를 전적으로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런 접근이 인종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종 문제에만 전착하는 바람에

미국독립혁명과 남북전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폄하하고 20세기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위한 투쟁을 무시했으며 노예제 폐지론자인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나 마틴 루터 킹 등의 역할을 완전히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저명한 역사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1619 프로젝트 비판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처음 인터뷰에 나섰던 빅토리아 바이넘(Victoria Bynum)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장교로서 반(反)노예제 그리고 반(反)남부군 입장에서 남부군을 버리고 군사 봉기를 일으켰던 뉴튼 나이트(Newton Knight)의 연구자이다. 뉴튼 나이트를 소재로 한 영화인 <존스 자유주>(Free State of Jones)가 2016년에 제작되기도 하였다. 1619 프로젝트에서는 노예제가 ‘미국의 국가적 죄악’이라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문 제시켰지만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남북전쟁 이전에 남부 지역에서도 노예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전쟁 기간에는 남부 연합에 맞서 싸우는 경우도 존재했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노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나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 했던 크고 작은 노력들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단순화는 노예제가 백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다는 식의 글에도 보인다며, 남부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는 노예제의 ‘보충 노동력’이었으며, ‘자유로운 이동’은 생계를 위한 이동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비판하였다(London 2019.10.30.). 빅토리아 바이넘을 비롯하여 고든 우드(Gordon Wood), 제임스 맥퍼슨(James M. McPherson), 제임스 오크스(James Oakes), 리처드 카와다인(Richard Carwardine), 아돌프 리드(Adolph Reed Jr.), 돌로레스 제니위스키(Dolores Janiewski), 클레이본 카슨(Clayborne Carson) 등 총 8명의 학자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1619 프로젝트가 대중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던 만큼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프로젝트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1월에는 클린턴 부부와 오랜 친분이 있으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신 윌리엔츠(Sean Wilentz)도 <뉴욕 북 리뷰(New York Review of Books)>에 1619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여 비판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는 몇몇 글은 감동적이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독립혁명, 남북전쟁, 링컨에 대한 묘사, 특히 링컨을 “노예제 종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연방을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백인 지상주의자”라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남북전쟁은 링컨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예제를 궁극적으

로 소멸시키려는” 승리한 공화당에 맞선 남부의 명백한 의도를 가진 반혁명이며, 그래서 처음부터 남부 연합에 맞선 반 노예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 존스가 노예제를 반대하는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는 ‘낯선 대안 역사(unfamiliar alternative history)’라 말하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은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노예제 반대 여론이 고양되면서 등장하였음을 강조하였다(Wilentz 2019.11.19.).

그리고 12월에는 5명의 역사학자(Sean Wilentz, Victoria Bynum, Gordon Wood, James McPherson, James Oakes)가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편집장인 제이크 실버스타인(Jake Silverstein)에 공개서한을 보냄으로써 논쟁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들의 비판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식민지인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노예제의 보호를 원했기 때문’이며, “[건국자들이]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독립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영국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나 존스의 주장이었다. 둘째는 링컨을 흑인의 평등에 헌신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한 것이고, 셋째는 미국 역사에서 흑인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대부분 홀로 싸워 왔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이데올로기를 앞세움으로써 부적절한 역사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사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뉴욕타임스>는 5인의 학자들이 보낸 공개서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실버스타인이 직접 나서서 1619 프로젝트의 정확성을 옹호하고 기사의 수정을 거부하는 반박문을 실었다(Silverstein 2019.12.20.).

이에 맞서 우드는 반박하는 편지를 보내 “나는 노예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독립을 원했다고 말한 식민지인으로 누가 있는지 한 명도 모르겠다. ... 식민지 모국인 영국이 1776년에 노예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사실에 어떤 식민지인도 불안감을 표출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Wood 2021, 199-201). 윌리엄즈 역시 실버스타인에 대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교육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본적 사실에 대한 존중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비판하였다(Wilentz 2020.1.22.).

남북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 12명도 “1619 프로젝트는 노예제에 관해 역사적으로 제한된 시각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미국 노예제를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예제를 미국의 독특한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 노예제를 자본가의 모험으로 해석

하는 것, 그리고 링컨과 ‘존경받는 다섯 명의 자유 흑인’ 사이의 대화에 관한 탈맥락적 인용을 비판했다. 그리고 다음 달 실버스타인은 다시 반론을 펼쳤다(Allen *et al.*, 2020.1.26.).

그러나 식민지인들이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혁명을 전개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결국 2020년 3월 11일 <뉴욕타임스>는 ‘해명(clarification)’을 게재하고, 노예제가 식민지인들의 ‘일부(some of)’에게 독립혁명의 동기가 되었다며 두 단어를 추가해 표현을 완화하였다.³⁾ 한나 존스 스스로 자신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명’으로 논란이 해결되기는 어려웠고, 보수적 성향의 연구자 단체인 전미 학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는 1619 프로젝트를 반박하면서 미국 역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1620 프로젝트’를 발족하였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 만에 도착한 청교도의 공헌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미국의 역사에 종교가 기여한 역할이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Wood 2020). 인종 문제를 강조한 1619 프로젝트에 대한 역작용으로 종교 프레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미국 내 보수적 시각의 언론들은 1619 프로젝트가 인종 문제를 정치화한 선동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뉴트 킹리치 전 하원의원은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폭스 뉴스의 <폭스와 친구들(Fox & Friends)>에 출연해 <뉴욕타임스>가 “소련의 <프라우다>나 <이즈베스티야>에 버금가는 선전지로 전락한 비극적인 일”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논객들 사이에서도 SNS를 통해 설전이 오갔다. 전 상원의원이자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2019년 8월 16일에 트위터로 “#1619 프로젝트는 우리 역사에 대한 강력하고 필수적인 재조명이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다.”며 프로젝트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킹리치 역시 트위터로 “<뉴욕타임스>는 ‘우리가 당신을 세뇌시키고 싶은 모든 선전’을 슬로건으로 삼아야 하며, 1619 프로젝트는 원래 <뉴욕타임스>의 모토를 거부하는 것”

3)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한 해석, 특히 노예제 및 흑인 지위와의 관계에 대해 미국 역사학계의 커다란 견해차가 존재한다. 미국 독립혁명이 실제로 얼마나 혁명적이었는가에 관한 학계의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보수 논객인 에릭 에릭슨은 자신의 블로그에 “인종적 불만을 자극하고 부추겨 이익을 얻으려는” 실패한 프로젝트라 비판하였고, 트위터로는 “인종적 렌즈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고, 트럼프만큼이나 인종적 긴장을 불태우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작가들의 작품이라 언급하였다.

논란 속에 이 특집 연재 기사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20년 5월 초 한나 존스가 풀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이뤄지고, 얼마 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가 점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BLM 운동이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호주 등 국외로 확산되어 인종주의와 관련된 인물들의 기념물 철거 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BLM 운동이 힘을 얻는 만큼 1619 프로젝트 역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1619 프로젝트가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탐 코튼(Tom Cotton)은 2020년 7월 23일 1619 프로젝트의 교재를 활용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방정부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지역 교육청이 공립학교에 이 프로젝트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20 미국 역사 구제법(Saving American History Act of 2020)’이라 이름을 붙인 짧은 법안을 제출하였다.⁴⁾ 그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아칸소 주의 한 언론(Arkansas Democratic gazett)과의 인터뷰에서 1619 프로젝트의 전제가 ‘미국이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인종차별적인 나라이며,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좌파의 프로파간다이자 미국 역사를 왜곡하는 최악의 역사 수정주의라 언급하면서, ‘노예제는 필요악’이라며 노예제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 역사표준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콜럼버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자고 하니, “그러면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냐?”라며 날선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던 장면이 재현되었다.

4) 법안이 발의되자 전미 사회과 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CSS)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고, 의회를 향해 팬데믹 시기에 역사교육의 약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2021.2.8).

V. 1776 위원회와 비판적 인종이론에 재갈 물리기

2020년은 트럼프가 재임에 도전하는 선거가 있던 해다. 공화당의 후보이기도 했던 트럼프는 BLM운동의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취소문화(cancel culture)’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취소문화’는 인종, 젠더, 이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이들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람으로써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자고 주장하는 리버럴파가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취소’하려고 한다며 리버럴파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가운데 6월 말 뉴욕 자연사박물관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기마상을 철거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Pogrebin 2020.6.21.). 말을 탄 루스벨트의 양옆으로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서 있는 상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철거 결정 소식을 접한 트럼프는 트위터에 “말도 안 돼, 하지 마(Ridiculous, don't do it)”라는 짧은 글귀를 올렸다.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동성 파괴 운동에 대해 “정신 나간 좌파 폭도들이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기념물을 모독하면서 동상을 부수고,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처벌, 취소, 박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Singh 2020.6.22). 이 발언에서도 트럼프는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어서 트럼프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하루 앞두고 조지 워싱턴·토머스 제퍼슨·시어도어 루스벨트·아브라함 링컨 등 4명의 전직 대통령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어에서 ‘취소문화’를 공격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좌파의 정치적 무기 중 하나가 ‘취소문화’이며, 사람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좌파의 문화혁명’은 미국독립혁명을 전복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선동했다. “저들은 우리를 침묵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호응했고, “미국”, “미국”이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Smith 2020.7.4.).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교육부가 1619 프로젝트의 내용을 주 교육과정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게 사실이라면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에서 연방 기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19 프로젝트 역시 ‘취

소문화'의 하나로 역사를 선택적으로 고쳐 서술함으로써 미국이라는 국가의 근간 자체를 공격하려는 기획으로 보았다. 그리고 9월 초 폭스 뉴스의 프로그램인 <터커 칼슨 투나이트>(Tucker Carlson Tonight)에 다큐멘터리 작가 크리스토퍼 루포(Christopher F. Rufo)가 출연해 '정부 직원에게 다양성 교육이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언급하였고, 이를 계기로 보수파는 이 이론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차별의 근저에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해온 기존의 사회제도가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인종과 법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던 법학자들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흑인 변호사이자 대학교수였던 데릭 벨(Derrick Bell)이 첫 주창자의 대표적인 학자다. 오바마의 대학 시절 은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인종, 인종주의, 미국 법(Race, Racism and American Law)』(1973)이다. 지금까지 간과해 왔던 것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영감을 주었으며 5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정착된 이론으로, 미국 사회는 비판적 인종이론을 통해 더 다양한 사회를 지향해왔다. 다양성의 실현은 1619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2020년 9월 22일 비판적 인종이론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라 하면서 연방정부 기관 내에서의 '미국 사회구조가 인종차별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교육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1619 프로젝트와 비판적 인종이론이 좌파의 역사 전쟁이고 취소문화라고 하는 보수파의 공격이 본격화하였다. 인종차별 문제에 미국 사회가 민감해져 가는 중에 초중고의 교사 연수 등에도 비판적 인종이론을 인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이 이론에 기반한 1619 프로젝트도 초중고에 확대되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공화당 측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공격하고 이 이론에 기반한 연수 등을 중지시키는 운동을 확대해 나갔다. 보수파는 학교 현장이 아이들에게 백인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학계는 리버럴에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남부나 중서부 등의 보수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비판적 인종이론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2020년부터 확산되고 있다. 보수파 입장에서 보면 1619 프로젝트도 비판적 인종이론도 좌파의 역사 전쟁으로 인식되었고, 취소문화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2020년 9월 17일 트럼프는 특이한 행사인 '제1회 미국 역사에 관한 백악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반(反)인종차별 시위를 “좌파 폭동과 대혼란”으로 규정하면서, “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미국은 인종차별이 만연한 국가라는 사악한 거짓말을 듣고 있다”며 “이런 세뇌가 너무 오래되었다”, “수십 년간 좌파가 학교에서 세뇌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사가 “1,000년 서양 문명의 성취”임에도 “좌파는 기만, 오류, 거짓말로 미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더럽혔다. 완전히 신뢰를 잃은 뉴욕 타임스의 1619 프로젝트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 나라의 미덕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자기 나라를 미워하고 그것을 건설한 이들이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악당이라고 믿도록 가르친다.”면서 “미국 역사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견해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조작하고, 결점을 확대하여 진실을 숨기고, 역사를 망가뜨린다.”며 빈곤한 학문에 기반을 둔 일련의 논쟁술(polemics)이 미국 건국자들을 욕되게 했고 미국 역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일종의 자문위원회인 1776 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천명하였다. 1619 프로젝트에 의한 역사 다시쓰기에 맞서 역사를 수호함으로써 “1776년의 유산이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 목표는 ‘좌파 교육’의 척결과 애국주의 교육과정의 개발이었다. 마침 이날은 1787년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지 23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1776년 위원회에 많은 우파 학자들이 결합하였으나 미국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1월 20일의 이틀 전인 1월 18일 『1776 보고서(The 1776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은 1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는 마틴 루터 킹의 날이었다. 보고서 발표 날짜를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을 기리는 날로 잡은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무언가 극적 대비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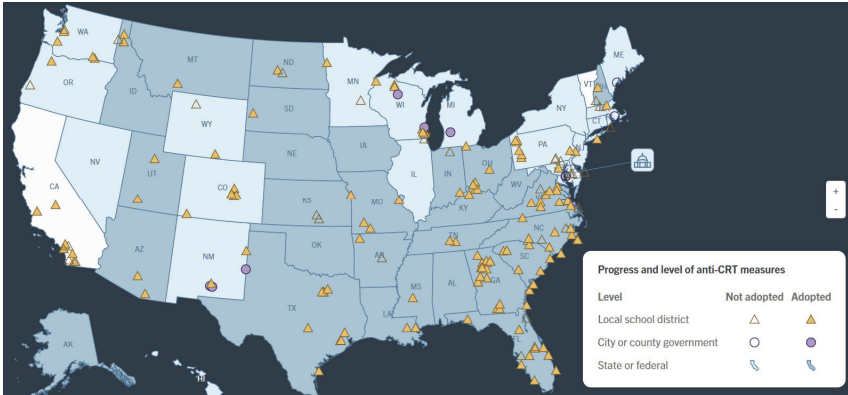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교육에 끼친 ‘좌파’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많은 곳에서 인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교육을 대체했고, 미국인들을 자신의 본성, 정체성, 그들의 장소와 시간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학생들이 그들 이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이론에 짜 맞춰지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1619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619년 8월 최초의 노예선이 미국 해안에 도착한 시점부터 미

국 건국의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그 뿌리가 ‘자유’가 아닌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근거한다고 본 프로젝트의 주장에 대해, “(미국 역사를 자랑스러움보다) 비통함과 심판으로 전환하며, 학생들이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문학적 참고자료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하워드 진(Howard Zinn)과 같은 사람들 또는 1619 프로젝트의 배후 언론인들의 왜곡된 역사관이 가로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작업들은 오늘날의 학생들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인간성, 선행, 또는 자애심을 의심하게 한다.”면서 “그들의 약점과 실패를 보는 것만이 중요한 전부라고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인들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는 교육을 강조하고, ‘1차 자료’에 의존하는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지향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가 발간되자 미국 역사학회 이사인 제임스 그로스먼은 인터뷰에서 이것은 ‘해킹’ 작업이며, “역사에 관한 작업이 아니라 문화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한 논쟁적인 정치 작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보고서는 1619 프로젝트의 대항마로서 발간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중적인 관심도 크게 끌지 못했다.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였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한 첫날 사인한 수백 개의 행정명령 가운데에 ‘1776 위원회의 폐지 및 자료 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1619 프로젝트, 더 나아가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 해석하였고, 비판적 인종이론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미국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바이든 취임 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red state) 가운데 주 정부 차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 론 디샌티스(Ron DeSantis)는 2021년 7월에 1619 프로젝트의 자료뿐만 아니라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연방 교육위원장에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비판적 인종주의 교육을 허용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슈를 공식화한 후, 주 단위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금지 법안’(Ban of Critical Race Theory Bill)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그림 1〉 비판적 인종 이론 규제 법안 통과 상황



(출처: CRT Forward 홈페이지)

UCLA 법학전문대학원 내 비판적 인종 이론에 관해 연구·조사하는 CRT Forward에 의하면 2022년까지 미국 전역의 주에서 인종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소 563건 발의하였으며 그중 241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CRT Forward 홈페이지를 보면 〈그림 1〉과 같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법안이 초·중고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그중 70%는 교실 수업과 교육과정을 통제하려는 것이며, 그 핵심 내용은 학교 수업(특히 사회과)에서 인종주의 관련 교육 금지, 모든 교사들에 대한 애국심 교육 연수 실시,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미국의 유산에 관련된 핵심 내용의 교육과정 반영 등이다(Lambert 2023.4.20). 주에 따라서는 도서관에 진열하는 서적을 제한하거나, 교사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한 발언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나아가 비판적 인종이론을 지지한 교육 위원회의 위원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네바다 주 등의 일부 주에서는 비판적 인종이론에 기초한 발언을 초·중고의 교사가 하지 않도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안조차 제안되었다. 위반할 경우의 일반적인 조치는 지원금 보류이다. 인종과 인종차별에 관한 교육을 제한하려는 전국적인 보수적 움직임이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VI. 맺음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싣고 온 배가 버지니아 주에 상륙한 400주년을 기념해 미국 역사의 재정립을 표방하면서 2019년 8월에 시작된 뉴욕 타임스의 1619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문화전쟁에 관해 살펴보았다. 1619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고, 프로젝트와 대척점에 있던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도 끝났지만, 비판적 인종이론으로 표상되는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교육을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러한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 1619 프로젝트가 기폭제가 되어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 전사를 살펴보면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어쩌면 문화전쟁은 표출되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수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1960~70년대에도 보수파의 반발이 있었으나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에 눌려 보수파가 의제를 펼치기 힘든 여건이었다. 탈진실(post-truth)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 지도자인 트럼프의 집권기에 보수파가 주도하는 문화전쟁이 벌어졌다.

〈뉴욕타임스〉가 부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프레임 설정으로 보수 세력에 의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역사적으로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역사 이해보다 이데올로기를 우선하여 사회 분열을 확대한다.’는 보수파의 주장이 먹혀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인종 문제의 정치화’라는 보수파의 지적이 단순히 선동이 아니라 수궁이 갈 만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1619프로젝트가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기획이라는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한나 존스는 2021년 『1619 프로젝트: 새로운 기원 이야기』를 펴낼 때 미국 역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에릭 포너(Eric Foner)를 중심으로 26명으로 구성된 역사학자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위해 별도로 9명의 역사학자를 참여시켰다.

나아가 1619 프로젝트의 과도한 인종 프레임은 백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인지적 차원의 ‘옳음’이나 ‘정당함’을 앞세우다 보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을 소홀히 하거나 읽어내지 못할 수 있다.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보수파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였다. 리버럴파가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는 선동이 먹힐 수 있었다. 가령 BLM 운동으로 전개된 동상 파괴 운동 중에 해방 기념비의 철거를 놓고 많은 논란을 낳았다. 기념물 중에는 시비의 판단이 어려운 것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 중심부의 링컨 공원에 노예해방선언을 기념하여 1876년에 세워진 해방기념비가 그렇다. 무릎을 꿇은 흑인 남성의 수갑을 해체하며 옆에 서 있는 링컨이 내려다보며 서 있는 모습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굴욕적인 구도이다(정웅기 2020, 397-399). 백인 남성 위주의 단선적 역사를 대신하여 흑인의 역사로 채우려는 행위는 보수적 결집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보수파의 역사 인식에 문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들의 성장에 자양분을 제공한 것은 바로 진보를 표방하면서 역사를 전유하려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려는 흐름이 자칫 원리주의화하여 ‘포용력이 없는 정의’로 협소해져 자칫 그 정당성을 잃을 수 있으며 정치적 극단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철학자 리처드 로티가 내놓은 21세기의 예측 『미국 만들기(Achieving Our Country)』 중에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사회 정의에 관한 자유주의 ‘좌파’의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경제적 불안정과 불안감이 꾸준히 늘어나 파시즘과 유사한 백래시가 출현할 수도 있음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 바 있다(Rorty 1997, 108-110).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투표할 강력한 인물을 찾으려 두리번거리고 결심할 것이다. 일단 선출되지만 하면 잘난 체하는 관료들, 농간을 부리는 법률가들, 지나치게 벌어들이는 주식 매매자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스트 교수들의 지배를 끝장낼 지도자 말이다. (...) 1932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총통으로 지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터무니없이 지나친 낙관이었다. 일어날 법한 일 가운데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 흑인과 갈색 미국인들과 동성애 미국인들이 쌓아온 성과가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농담 섞인 경멸이 유행처럼 되돌아오고, ‘검둥이’, ‘유대 놈’ 같은 단어가 또다시 작업장에서 들릴 것이다. 강단 좌파들이 학생들에게 용납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모든 사디즘이 불꽃처럼 역류할 것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미국인들은 대학 졸업자들이 그들에게 일러 주었던 예외범절에 대해 느꼈던 모든 양심의 배출구를 찾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저급한 선동 정치가가 등장하며, 그 결과로 병적인 가학성 세계로 회귀하여 여성과 소수자를 증오하는 경향이 만연할 것이라는 예견이었다. 이른바 트럼프 현상 역시 최근에 나타난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문화전쟁에 뿌리를 둔 긴 흐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전쟁이라 해서 문화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선동 정치에 의한 백래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토대, 즉 사회적 양극화가 초래한 박탈감이 커다란 저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문화 간 충돌은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이러한 문화전쟁이 전개되는 복잡한 동인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619 프로젝트는 한 언론사의 기획으로 시작하여 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공공의 차원에서 역사(public history)와 교육(public pedagogy)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미국의 문화전쟁은 한국의 타산지석이기도 하다.

윤세병은 공주대 교양학부 조교수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 동아시아 근현대의 역사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 구조와 이데올로기』, 「혐오를 넘어서는 역사교육」,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생태환경사 서술」 등의 글을 썼다.

참고문헌

- Parenti, Michael. 김혜선 역. 2003. 『비주류 역사』. 녹두.
- Rorty, Richard. 임옥희 역. 2003. 『미국 만들기』. 동문선.
- 本田創造. 김효진 역. 2021. 『미국 흑인의 역사』. AK.
- 강선주. 2001. “미국의 세계교육을 둘러싼 논쟁.” 『미국사 연구』 14.
- 강선주. 2015. “다시 미국의 ‘문화 충돌’.” 『역사교육논집』 56
- 공종식. 1994. “21세기를 여는 포성 문화전쟁-쥬라기공원 스피버그, 라이온 킹 카젠버그, 게펜레코드 게 펜, ‘꿈’의 결합.” 『동아일보』 (11월 15일).
- 김기봉. 2011. “미국 역사전쟁에 비춰보는 한국사교과서 논쟁.” 『철학과 현실』 11.
- 김정옥. 2015. “미국 역사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 『사충』 84.
- 박석재. 1995. “문화전쟁 시대 돌입, 과학문화 육성 절실.” 『조선일보』 (2월 2일).
- 신문수. 2016. “미국 다문화주의 운동의 양상: 성과와 전망.” 『미국학』 39.
- 이성호. 2002.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성과 수월성: 평등교육의 상이한 관점.”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Ⅱ-문화·경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상준. 200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24.
- 정상준. 2011. “미국의 다문화주의, 소비문화와 미국의 정체성.” 『지식의 지평』 10.
- 정웅기. 2020. “‘새로운’ 미래의 시추-미국의 BLM운동과 공공 기념물 철거 논쟁.” 『역사비평』 133.
- 홍성욱. 2022. “코로나 마스크의 다면성.” 『마스크 파노라마-흑사병에서 코로나19까지, 마스크의 과학과 정치』, 문학과 지성사.
- Erekson, Keith A. 2012. *Politics and the History Curriculum*. Palgrave macmillan.
- Grabar, Mary. 2021. *Debunking The 1619 Project: Exposing the Plan to Divide America*. Regnery History.
- Hannah-Jones, Nicole and Roper, Caitlin and Silverman, Ilana and Silverstein, Jake eds. 2021. *The 1619 Project: A New Origin Story. One World*.
- Hannah-Jones, Nikole and Watson, Renée and Smith, Nikkolas. 2021. *The*

- 1619 Project: Born on the Water*. Kokila.
- Hunter, James D. 1991. *Culture Wars: The struggle in define America*. Basic Books.
- Magness, Philip W. 2020. *The 1619 Project-A Critique*, 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 Nash, Gary and Crabtree, Charlotte and Dunn, Ross. 1997. *History on Trial*. Alfred K. Knopf.
- The President's Advisory 1776 Commission. 2021. *The 1776 Report*.
- Wood, Peter W. 2020. *1620: A Critical Response to the 1619 Project*. Encounter Books.
- Allen, William B. and Burlingame, Michael A. and Fornieri, Joseph R. and Guelzo, Allen C. and Kolchin, Peter and LaFantasie, Glenn W. and Morel, Lucas E. and Rable, George C. and Schaub, Diana J. and Sheehan, Colleen A. and Smith, Steven B. and Zuckert, Michael P. 2020. Twelve Scholars Critique the 1619 Project and the New York Times Magazine Editor Responds. *History News Network*(1월 26일).
- Buchanan, Patrick J. 1992. "CULTURE WAR SPEECH: ADDRESS TO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8월 17일).
- Ellis, Nicquel T. 2020. Forget What You Know about 1619, Historians Say. Slavery Began a Half-Century before Jamestown, *USA Today*(12월 17일).
- Ellison, Sarah. 2020. How the 1619 Project took over 2020, *The Washington Post* (10월 13일).
- Evans, Stephen. 2015. Why South Korea is rewriting its history books, *BBC News*(12월 1일).
- Garrett, Robert T. 2015. Texas school board rejects push to enlist academics to check textbooks for factful errors, *Dallas News*(11월 18일).
- Kanishka Singh. 2020. Trump opposed to removing Theodore Roosevelt's statue from outside Museum of Natural History, *Reuters*(6월 22일).
- Lambert, Diana. 2023. National wave of anti-CRT measures trickles into California schools, *EdSource*(4월 20일).

- London, Eric. 2019. Historian Victoria Bynum on the inaccuracies of the New York Times 1619 Project, *World Socialist Web Site*(10월 30일).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2021. “Saving” American History? Start by Teaching American History(2월 8일).
- Parker, Susan. 2019. ‘1619 Project’ ignores fact that slaves were present in Florida decades before, *St.Augustine Record*(8월 24일).
- Paulson, Amanda. 2010. Texas textbook war: ‘Slavery’ or ‘Atlantic triangular trade’?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5월 19일).
- Pogrebin, Robin. 2020. Roosevelt Statue to Be Removed From Museum of Natural History, *The New York Times*(6월 21일).
- Silverstein, Jake. 2019. We Respond to the Historians Who Critiqued The 1619 Project, *The New York Times*(12월 20일).
- Smith, David. 2020. US under siege from ‘far-left fascism’, says Trump in Mount Rushmore speech, *The Guardian*.(7월 4일).
- Sukmana, Feba. 2020. Historian Maria Grever: ‘Destroying statues is no medicine against racism’, *Erasums Magazine*.(7월 2일).
- Wang, Yanan. 2015. ‘Workers’ or slaves? Textbook maker backtracks after mother’s online complaint, *The Washington Post*(10월 5일).
- Wilentz, Robert S. 2020. A Matter of Facts. *The Atlantic*(1월 22일).
- Wilentz, Sean. 2019. American Slavery and ‘the Relentless Unforesee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11월 19일).
- Wood, Gordon. 2021. Historian Gordon Wood responds to the New York Times’ defense of the 1619 Project, North, David and Mackaman, Thomas eds., *The New York Times’ 1619 Project and the Racist Falisfication of History*, Mehring Books.

Abstract

‘Culture Wars’ over History in America: Centered on the 1619 Project

Yoon, Sebyong^{*}

This article introduce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Project 1619, one of the most prominent culture wars that has recently gripped the United States. First, I looked at examples of conflicts over historical understanding that preceded the 1619 Project. Second, I examined how the 1619 Project, a New York Times initiative, was developed. Third, I analyzed Trump’s 1776 Commission as a counterpoint to the 1619 Project. Fourth, I describe the movement in Republican-controlled states to pass legislation banning the teaching of critical race theory as well as the 1619 Project materials. Using the conflict over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as a model,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history education.

Key Words: Culture War, New York Times, 1619 Project,
1776 Commission, Critical Race Theory

논문투고일: 2023. 04. 23.

논문심사일: 2023. 04. 24.

게재확정일: 2023. 04. 30.

^{*} Professor of Liberal Art College,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reeeb@hanmail.net